

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(tbs)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!
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국민의힘 서초구 제4선거구 최호정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(tbs)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- 2020년 출범한 서울미디어재단 티비에스는 1990년 교통·기상 전문 안내방송국으로 개국한 교통방송국의 후신입니다.
- 설립근거인 「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(tbs)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와 tbs 정관에서 규정한 사업 범위도 방송을 통한 교통 및 생활정보제공이 우선입니다.
- 하지만, 네비게이션·앱 등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즉각적·실시간 교통안내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공영 라디오를 통한 교통정보 서비스는 그 존재 가치가 사라졌습니다.

- 지난 8월 폭우로 서울의 교통이 마비되어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, 교통방송 티비에스에서는 즐거운 대화와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. 기관 스스로 목적사업 수행과 공영성이라는 재단 설립의 취지를 사실상 포기한 가장 단적인 사례입니다.

- 존경하는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- 티비에스는 이미 공영방송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했습니다. 그럼에도 3년 간 1천억에 달하는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. 시민의 혈세가 엉뚱한 데 잘못 쓰여졌다면 지금이라도 당연히 바로잡아야 합니다.

- 서울시의 예산은 정말 필요한 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대명제를 반대할 이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.

- 이에 교통방송이라는 본래의 공영목적이 상실된 티비에스에 대한 지원을 폐지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(tbs)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- 이를 통해 미디어재단 티비에스가 서울시 출자·출연 기관에서 제외되어 민간 주도의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을 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합니다.

- 또한, 부칙을 통해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에 소속된 계약직을 포함한 전체 직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운용 중이거나 신설될 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에 우선적으로 채용하며 신분이나 급여 등에 있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했으며
- 폐지 이후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 시행 전이라도 시장이 재단과 출연 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-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